9월 21일

개발자 3인 슬랙 가입, 실습 과제 시행

9월 22일

아이디어 회의 중 개발해 볼 만한 안건이 생각남(데레스테라는 리듬게임의 노트를 대신 쳐주는 보조 어플리케이션), 모두 찬성. 그것에 대한 자동 터치 이벤트와 채보 관련 정보 수집 시작.

9월 23일

데레스테 채보 사이트 API와 adb로 핸드폰을 자동으로 터치하는 방법 찾아냄

9월 24일

여러가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추리고,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함.

9월 28일

딜레이 없이 터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발견, 그러나 곡이 시작할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함, 스크린을 오버레이해서 실행 버튼을 제작하거나, 곡마다의 첫 음을 따와서 맞추기,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실행하기 등의 해결 방법이 제시됨